

類傷寒의 來歷과 그 種類에 대한 小考

김상운*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of Yusanghan and the Types

Kim Sang-un

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Yusanghan(類傷寒) means disease which chills and fever manifest like Cold damage(傷寒) but not Cold damage. However, study on Yussanghan is in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igin and development process of Yusanghan.

Methods:

1. Terms and disease related with Yusanghan was collected from books covering Cold damage of all time and analyzed.
2. The transition history was researched by analyzing collected terms.
3. Total appearance frequency of all time by collected disease was researched.

Results:

Yusanghan was appeared in *Hwalinseo*(活人書), which *Ju Geong*(朱肱) of the Song Dynasty wrote, for the first time and the definition and type were established. For the types of those, there are four diseases such as Phlegm-Fluid Retention(痰飲), Food Accumulation(食積), Vexation of Deficiency Type(虛煩), Beriberi(脚氣). Since then, the theory about Yusanghan had developed and the number of types had also increased until the Myung Dynasty.

Conclusions:

In early days, External Contraction Diseases(外感病) was not included in Yusanghan, but since the late Myung Dynasty, there were a lot of doctors who included External Contraction Diseases in Yusanghan, not in Cold damage. There are Summerheat Stroke(中暈), Wind-Dampness(風濕), and Warm Disease(溫病) etc. for included External Contraction Diseases. Because of this, the number of types of Yusanhan had significantly increased.

Key Words

Cold, Chills, Fever, Yusanghan(類傷寒)

* 교신저자 : 김상운 / 소속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063-850-6978 / E-mail: kimsangun81@hanmail.net

투고일 : 2013년 12월 3일 수정일 : 2013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20일

I. 서론

병에 걸려서 열이 날 때, 가벼운 발열성 질환이면 큰 문제가 없지만, 감염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인한 발열이라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도 대개 열이 나는 병은 傷寒 즉 外感病因으로 진단하고 급히 치료하였다. 하지만 外感病因뿐만 아니라 內傷, 外傷, 續發性病因으로 인해 열이 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傷寒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나타난 병명이 類傷寒이다.

類傷寒이란 傷寒처럼 惡寒, 發熱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실제 傷寒이 아닌 질환을 말한다. 현재에도 類傷寒이란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지만, 類傷寒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등장하였고, 그 理論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여러 醫書에서 類傷寒에 傷寒處方으로 잘 못 치료하여 오히려 病證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현재 임상에서도 食積類傷寒을 外感病으로 진단하여 正氣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傷寒과 類傷寒의 감별진단은 초기 치료의 관건이 된다. 임상에서 類傷寒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類傷寒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의학사전들에서 ‘類傷寒’으로 검색해보면, 그 내용이 『東洋醫學大辭典』과 『中國醫學大辭典』을 벗어나지 않는다.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醫學心悟』를 인용하여 ‘冬溫, 熱病, 溫病, 中寒, 寒疫, 風溫, 暑病, 瘧病, 傷食, 脚氣’ 등이 모두 類傷寒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傷寒心法要訣』을 인용하여 ‘停痰, 傷食, 脚氣, 虛煩, 內癰’이 類傷寒의 5가지 病證이라고 말하고 있다¹⁾. 이처럼 서로 다른 종류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으로 類傷寒의 종류를 파악하기에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한편 『표준한의학용어집』²⁾을 위시한 대부분의 한의학사전들이 따르고 있는 『中國醫學大辭典』에서는 ‘冬溫, 溫病, 熱病, 濕溫, 風溫, 霍亂, 瘧, 傷食, 痰飲, 脚氣, 內癰, 畜血’ 등이 類傷寒에 해당된다고 하였다³⁾. 하지만 虛煩과 같은 주요 질환이 누락되어 있고, 그 종류의 수가 적어 이것으로 類傷寒의 종류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 통용되는 한의학사전류를 통해 類傷寒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대 醫書에서 제시된 類傷寒 종류를 조사하여, 그 종류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주요 傷寒書籍에서 언급된 類傷寒 관련 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類傷寒의 종류를 정확히 밝히고자 하며,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類傷寒의 來歷을 보고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먼저 『國譯中醫學術史』⁴⁾에서 시대별로 언급된 주요 傷寒書籍 및 관련 方書들을 검토하였는데, 그 가운데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 『傷寒總病論』, 『注解傷寒論』, 『活人書』⁵⁾, 『傷寒百證歌』, 『傷寒九十論』, 『傷寒解惑論』, 『傷寒百問歌』, 『傷寒補亡論』, 『仁齋傷寒類書』, 『傷寒直格』, 『陰證略例』, 『傷寒全生集』, 『傷寒六書』, 『醫學入門』, 『傷寒準繩』, 『丹臺玉案』, 『傷寒補天石』, 『傷寒括要』, 『傷寒闡要編』, 『傷寒論

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7.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576.

2) 한의학용어제정위원회. 표준한의학용어집. 서울, 함춘한학, 2006, 286.

3) 謝觀. 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001, 1440.

4) 嚴世芸. 國譯中醫學術史. 고양시, 대성의학사, 2011, 318-324, 397-420, 636-641, 779-782.

5) 朱肱이 撰書할 당시의 書名은 『南陽活人書』였지만, 현재에는 『增注類證活人書』, 『類證活人書』, 『活人書』 등으로 전해지고 있어, 통칭 『活人書』로 했음을 밝힌다.

條辨』, 『景岳全書』, 『傷寒辨證』, 『醫學心悟』, 『醫宗金鑑』, 『傷寒正醫錄』, 『傷寒指掌』, 『尚論篇』, 『傷寒來蘇集』, 『傷寒論類方』, 『傷寒溯源集』, 『傷寒大白』, 『張氏醫通』, 『傷寒緒論』의 총 37種을 1차 검토하였다.

이상 서적들의 목차에서 類傷寒과 관련된 編이 존재하는 서적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類傷寒의 來歴을 살피기 위해, 隋·唐代 및 宋代 초기와 같이 類傷寒의 명칭과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 시기의 서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였으니, ‘傷寒相似’, ‘似傷寒’ 등과 같은 유사용어가 사용되었거나, 별도의 編이 존재하지 않고 類傷寒 관련 病證이 책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내용이 중복되거나 類傷寒에 대한 論議가 미비한 서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千金翼方』, 『傷寒總病論』, 『注解傷寒論』과 같이 類傷寒에 관련 부분의 내용이 비슷한 서적은 한 가지 서적 『千金翼方』으로 통일하였고, 『傷寒全生集』, 『傷寒六書』와 같이 한 醫家의 서적은 醫論이 중복되므로 『傷寒全生集』으로 통일하였고, 『傷寒九十論』, 『傷寒解惑論』, 『傷寒百問歌』, 『傷寒論條辨』, 『景岳全書』, 『傷寒論類方』, 『傷寒大白』, 『張氏醫通』, 『傷寒緒論』과 같이 類傷寒에 관련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내용이 미비한 서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기준으로 20種의 서적을 선정하여, 해당 부분에서 類傷寒 관련 용어, 정의, 病證 등을 조사한 다음, 그 의미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Ⅲ. 본 론

1. 類傷寒 관련 용어의 내력

時代에 따라 類傷寒 관련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1) 隋·唐代

『諸病源候論』(610, 巢元方 等)에서는 ‘傷寒相似’, ‘似傷寒’, ‘如傷寒’이라하였다⁶⁾.

『千金要方』(652, 孫思邈)에서는 ‘傷寒相似’, ‘似傷寒’이라하였다⁷⁾.

『千金翼方』(682, 孫思邈)에서는 ‘相濫’이라하였다⁸⁾.

『外臺秘要』(752, 王燾)에서는 ‘傷寒相似’, ‘似傷寒’이라하였다⁹⁾.

2) 宋代

‘類傷寒’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서적은 『活人書』(1118, 朱肱)이다. 『活人書·卷七』에서 “中脘에 痰이 있어도 춥고 열이 나며, 胸膈이 그득하고 막힌 듯하다. 傷寒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머리가 아프지 않고 목덜미가 뻣뻣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고 하였다¹⁰⁾.

『傷寒百問歌·小兒瘡疹』(1131~1162 추정, 錢聞禮)에서도 ‘類傷寒’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니, “小兒瘡疹은 傷寒과 유사다.”고 하였다¹¹⁾. 『傷寒百

- 6) 巢元方 等.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35, 722, 1248. “因食不消, 所以發熱, 狀似傷寒”, “初得時, 或如傷寒”, “變蒸, 與溫壯傷寒相似”
- 7) 孫思邈. 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208, 540. “虛煩熱者, 與傷寒相似”, “江南有射工毒蟲……中略……寒熱筋急, 仍似傷寒.”
- 8) 孫思邈.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27. “論曰, 傷寒與瘧病濕病及熱喝相濫, 故敘而論之.”
- 9)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58, 493, 857. “病有虛煩熱者, 與傷寒相似, 然不惡寒, 身不疼痛, 故知非傷寒也.”, “凡脚氣……中略……又似傷寒”, “卒得食病, 似傷寒.”
- 10)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177. “中脘有痰, 亦令人, 憎寒發熱胸膈痞滿, 有類傷寒, 但頭不疼, 項不强, 爲異.”
- 11)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學苑出版社, 2009, 191. “小兒瘡疹, 類傷寒”

問歌』는 저작시기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만 저자가 紹興年間(1131~1162)에 지금의 福建省 建甌市에서 通判을 지냈다는 사실에서 그 저작시기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¹²⁾.

『傷寒百證歌』(1132, 許叔微)의 篇名에서는 「四證似傷寒歌」라 하였다¹³⁾. 그의 다른 저서 『傷寒九十論』(1149, 許叔微)의 篇名에서는 「寒熱類傷寒證第八十」이라 하기도 하였다¹⁴⁾.

『傷寒補亡論』(1181, 郭雍)의 篇名에서는 「傷寒相似諸證十四條」라 하였으며, 본문 중에는 ‘類傷寒’이라 하기도 하였다¹⁵⁾.

앞에서 말한 『傷寒百證歌·四證似傷寒歌』에서 ‘四證’은 食積, 虛煩, 寒痰, 脚氣를 말하는데, 『仁齋傷寒類書』(1260, 楊士瀛)에서는 같은 4가지 病證에 대해 논하면서 「痰證傷食類傷寒」, 「虛煩脚氣類傷寒」이라 하였다¹⁶⁾.

3) 明代

이 시기에는 ‘類傷寒’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서적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傷寒全生集』(1445, 陶華)의 篇名에서는 「辨痰證類傷寒例」, 「辨食積類傷寒例」, 「辨虛煩類傷寒例」, 「辨內傷瘀血證發熱狀類傷寒例」라 하였다¹⁷⁾.

『醫學入門』(1575, 李梴)에서는 傷寒編 가운데서 ‘類傷寒’의 名義에 대해 논했다¹⁸⁾.

『傷寒準繩』(1604, 王肯堂)의 篇名에서는 「傷寒類傷寒辨」이라 하였다¹⁹⁾.

『傷寒闡要編』(明代末期 추정, 閔芝慶)의 篇名에서는 「辨類傷寒證」이라 하였다²⁰⁾.

『傷寒括要』(1649, 李中梓)의 篇名에서는 「類傷寒六證」이라 하였다²¹⁾.

4) 清代

이 시기에는 明代와 마찬가지로 ‘類傷寒’이라는 표현이 서적에 많이 등장하였다.

『傷寒辨證』(1678, 陳堯道)의 篇名에서는 「類傷寒七證」이라 하였다²²⁾.

『醫學心悟』(1732, 程國彭)의 篇名에서는 「傷寒類傷寒辨」이라 하였다²³⁾.

『傷寒心法要訣』(1742, 吳謙)의 篇名에서는 「類傷寒五證」이라 하였다²⁴⁾.

『傷寒正醫錄』(1744, 邵成平)의 篇名에서는 「類傷寒六證」이라 하였다²⁵⁾.

『傷寒指掌』(1796, 吳貞)의 篇名에서는 「類傷寒辨」이라 하였다²⁶⁾.

이상과 같이 ‘類傷寒’ 관련 용어의 내력을 살펴본 결과, 隋·唐代에는 ‘類傷寒’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다만 ‘似傷寒’, ‘傷寒相似’라 하였다. 宋代에는 『活

12)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學苑出版社, 2009, iii.

13)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4.

14)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76.

15) 郭雍. 傷寒補亡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96. “雖類傷寒, 但頭不疼, 項不强爲異.”

16) 楊士瀛. 楊士瀛醫學全書·仁齋傷寒類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462.

17) 陶節庵. 傷寒全生集. 鄭州, 中原農民出版社, 2012, 234-242.

18)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7, 1136.

19)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傷寒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69.

20) 閔芝慶. 海外回歸中醫善本古籍叢書·傷寒闡要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405.

21)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傷寒括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03.

22) 陳堯道. 續修四庫全書985·傷寒辨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655.

23) 程國彭. 中華醫書集成·醫學心悟.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29.

24) 吳謙等. 御纂醫宗金鑑. 서울, 범인문화사, 2006, 534.

25) 邵成平. 傷寒正醫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2, 19.

26) 吳貞. 傷寒指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1.

人書』에서 ‘類傷寒’이 최초로 등장한 이후에 『仁齋傷寒類書』에서는 「痰證傷食類傷寒」, 「虛煩脚氣類傷寒」과 같이 篇名으로 ‘類傷寒’이 표방되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여전히 ‘似傷寒’, ‘傷寒相似’로 표현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明·清代에는 대부분의 書籍에서 ‘類傷寒’이란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다음으로 時代別로 醫書에서 밝힌 類傷寒 관련 病證을 살펴보았다.

2. 時代別 醫書에서 제시된 類傷寒 관련 病證

1) 隋·唐代

『諸病源候論』에서는 狐惑, 瘴氣, 卒食病, 射工, 飲酒後諸病, 蚘蟄瘻, 小兒變蒸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²⁷⁾. 특히 「卒食病似傷寒候」에서는 類傷寒의 개념이 최초로 篇名에 표방되었다.

『千金要方』에서는 小兒變蒸, 虛煩, 射工蟲毒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²⁸⁾.

『唐本傷寒論』으로 알려진 『千金翼方』에서는 「太陽病用桂枝湯法第一」의 첫머리에서 “『論』에서 ‘傷寒과 瘧病, 濕病, 熱病, 喝病이 서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순서대로 논한다.’고 하였다.”²⁹⁾고 하면서, 본문에서 瘧, 風濕, 寒濕, 中喝을 제시하였다³⁰⁾.

『外臺秘要』에서는 虛煩, 脚氣, 卒得食病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³¹⁾.

이상과 같이 隋·唐代에는 여러 病證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다만 이러한 病證들이 책 가운데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하나의 독립된 編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卒食病, 虛煩, 脚氣 등에 대한 論議는 이후 宋代에 類傷寒의 정의 및 病證이 확립되는데 바탕이 되었다. 한편 『千金翼方』에서는 瘧, 風濕, 寒濕, 中喝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外感病에 속하면서 傷寒과 유사한 病證들로 類傷寒과는 구별이 필요하다.

2) 宋代

『活人書』에서는 「7卷」 전체를 類傷寒에 관련된 부분으로 설정하고, 卷頭에서 “痰證, 食積, 虛煩, 脚氣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傷寒과 비슷하지만 실제 傷寒이 아닌 것들이다. ……(중략)… 열이 나고 惡寒이 드는 것을 보고 종종 傷寒으로 보고 汗·吐·下法을 시행하여 이로 인해 夭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類傷寒의 4가지 病證과 정의를 제시하였다³²⁾. 이외에 瘧瘵, 小兒瘡疹도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7卷」으로 같이 묶지는 않았다³³⁾.

『傷寒百證歌』에서는 食積, 虛煩, 寒痰, 脚氣의 4가지 病證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³⁴⁾.

『傷寒補亡論』에서는 傷寒과 유사한 病證을 논의하면서, 外感和 관련이 깊은 病證과 雜病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瘧瘵, 濕痺, 風濕, 濕溫, 寒濕, 中喝, 霍亂, 虛煩, 溫疫, 溫病, 熱病, 風溫, 溫毒과 같이 外感和 관련이 깊은 病證들은 ‘傷寒과 유사한데 傷寒이 아닌 질환(似傷寒非傷寒之疾)’으로 규정하고, 「十七卷」, 「十八卷」에 나누어 설명하였다³⁵⁾.

27) 巢元方等.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80, 357, 634, 722, 753, 939, 1248.

28) 孫思邈. 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87, 208, 540.

29) 孫思邈.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27-129. “論曰, 傷寒與瘧濕病及熱喝相濫, 故敘而論之.”

30) 孫思邈.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249-250.

31)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58, 493, 857.

32)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177. “論痰證食積虛煩脚氣, 與傷寒相似, 實非傷寒也……(中略)…見其發熱惡寒, 往往作傷寒治之, 發汗吐下, 因茲夭橫者, 多矣.”

33)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174, 517.

34)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4-15.

그리고 痰, 食積, 脚氣, 射工毒, 水毒, 瘴, 霧, 溫瘧, 酒病, 癰疽, 豌豆瘡, 小兒瘡疹과 같은 雜病들은 ‘傷寒인지 의심되는 질환들(疑似諸疾)’으로 규정하고, 「十八卷」末尾에 「傷寒相似諸證十四條」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³⁶⁾.

『仁齋傷寒類書』에서는 痰證, 傷食, 虛煩, 脚氣의 4가지 病證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³⁷⁾.

이상과 같이 宋代는 본격적으로 類傷寒에 대한 論議가 시작된 시대였다. 朱肱은 『活人書』에서 類傷寒에 대해 별도의 編을 만들고, 4가지 病證을 제시하면서 類傷寒의 定義를 밝혔는데, 이는 이후 醫家들의 類傷寒 研究에 礎石이 되었다. 한편 隋·唐代 『千金翼方』에서 언급되었던 瘧, 風濕, 寒濕, 中暈과 같은 外感病들은 類傷寒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類傷寒을 제시한 목적이 外感病과 正傷寒을 감별하는데 있지 않고, 雜病과 傷寒을 감별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郭雍은 外感病과 正傷寒을 구분하는데도 힘썼다. 그렇다고 이러한 外感病들을 類傷寒에 포함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러한 外感病들을 ‘傷寒과 유사하지만 傷寒이 아닌 질환(似傷寒非傷寒之疾)’으로 규정하고 「十七卷」과 「十八卷」에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明末 이후에 外感病을 類傷寒에 포함시킨 王肯堂, 程國彭, 吳貞 등과도 다른 모습이다.

外感病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었지만, 郭雍은 누구보다 朱肱의 類傷寒에 대한 醫論을 계승한 醫家이다. 그는 痰, 食積, 脚氣 등 朱肱이 밝힌 類傷寒 질환들에 대해서는 ‘傷寒인지 의심되는 질환들(疑似諸疾)’로 규정하고, 外感病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傷寒相似諸證十四條」라는 章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朱肱이 제시한 類傷寒의 바탕 위에 射工毒, 水毒, 瘴, 酒病과 같이 隋·唐代에 흩어져 있던 類傷寒 관련 질환들을 대거 보충하였다.

결론적으로 郭雍은 外感病과 類傷寒의 경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朱肱이 제시한 類傷寒의 定義를 좀 더 명확하게 하였으며, 失傳되었던 여러 病證을 추가하여 그 종류를 확대하였다.

3) 明代

『傷寒全生集』에서는 痰證, 傷食, 虛煩, 脚氣, 內傷瘀血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³⁸⁾.

『醫學入門』에서는 痰飲, 虛煩, 脚氣, 食積, 瘡毒, 赤膈傷寒, 流注傷寒, 瘀血, 痘疹, 勞發, 內傷, 砂證, 大頭瘟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³⁹⁾.

『傷寒準繩』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痰, 飲, 脚氣, 虛煩의 4가지 病證을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王叔和는 瘧, 濕, 暈, 霍亂 등도 傷寒과 유사한 病證으로 여기고, 『傷寒論』에 넣었다. 하지만 證狀들을 비교해보면 이것만이 아니다.”고 하면서 內傷, 冬溫, 溫病, 寒疫, 熱病, 濕溫, 風溫, 霍亂, 瘧, 傷食, 虛煩, 痰, 脚氣, 內癰, 畜血의 病證들을 제시하였다⁴⁰⁾.

『丹臺玉案』에서는 脚氣, 食積, 夾痰證, 虛煩, 蓄血, 江南溪毒, 螺螄疔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⁴¹⁾.

『傷寒補天石』에서는 內傷, 瘡瘍, 痧病, 瘀血, 痰證, 食積, 虛煩, 脚氣, 大頭瘟, 黃耳傷寒, 赤膈傷寒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⁴²⁾.

35) 郭雍. 傷寒補亡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64-295.

36) 郭雍. 傷寒補亡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96-302.

37) 楊士瀛. 楊士瀛醫學全書·仁齋傷寒類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462-463.

38) 陶節庵. 傷寒全生集. 鄭州, 中原農民出版社, 2012, 234-242.

39)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7, 1128-1136, 1830.

40)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傷寒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69-770. “世傳以痰, 飲, 脚氣, 虛煩四證爲似傷寒. 王叔和又以瘧, 濕, 暈, 霍亂等證似傷寒者, 編入傷寒論中. 然以形證較之, 非止此數者而已.”

41) 孫文胤. 丹臺玉案.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2, 54-60.

『傷寒括要』에서는 痰證, 食積, 虛煩, 脚氣, 瘀血, 內癰의 6가지의 病證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⁴³⁾.

『傷寒闡要編』에서는 冬溫, 寒疫, 中暈, 濕痺, 寒濕, 風濕, 傷食, 痰證, 虛煩, 脚氣, 溫疫, 大頭瘟, 破傷風, 瘀血, 瘡瘍, 內癰, 狐惑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⁴⁴⁾.

明代에는 宋代에 확립된 類傷寒의 바탕 위에 여러 가지 病證이 추가됨으로써, 類傷寒의 理論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시기였다. 『傷寒全生集』에서는 朱肱의 4가지 類傷寒證 위에 瘀血이 추가되었으며, 『傷寒準繩』에서는 여기에 內癰이 추가되었는데, 이 두 가지는 이후의 다른 醫家의 類傷寒 분류에도 일반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醫學入門』의 勞發, 『傷寒補天石』의 黃耳傷寒, 『傷寒闡要編』의 破傷風과 같이 새롭게 類傷寒에 포함되는 질환도 있었다. 또한 『醫學入門』, 『傷寒準繩』, 『傷寒補天石』에서는 傷寒과 유사한 內傷病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明末의 王肯堂은 『傷寒準繩』에서 雜病뿐만 아니라 外感病도 類傷寒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면서, 많은 外感病을 類傷寒에 포함시켰다. 이후 『傷寒闡要編』에서도 이러한 醫論이 계승되었으며, 이후 清代에서도 이와 같은 醫家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4) 清代

『傷寒辨證』에서는 기존의 痰證, 食積, 虛煩, 脚氣의 病證은 익숙히 類傷寒으로 알고 있어 구별이

쉬우므로, 혼동되기 쉬운 風溫, 濕溫, 瘧疾, 霍亂, 剛柔瘧, 瘡瘍, 內癰에 대해 논하였다⁴⁵⁾.

『醫學心悟』에서는 溫病, 熱病, 中寒, 冬溫, 寒疫, 傷暑, 濕溫, 風溫, 風濕, 霍亂, 瘧, 傷食, 虛煩, 痰, 脚氣, 外癰, 內癰, 蓄血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⁴⁶⁾.

『醫宗金鑑·傷寒心法要訣』에서는 停痰, 傷食, 脚氣, 虛煩, 內癰의 5가지 病證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⁴⁷⁾.

『傷寒正醫錄』에서는 痰, 食積, 虛煩, 脚氣, 內癰, 蓄血의 6가지 病證이 傷寒과 유사하다고 하였다⁴⁸⁾.

『傷寒指掌』에서는 “사계절의 六淫邪氣에 感觸되어 열이 나는 병을 요즘 사람들이 모두 傷寒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傷寒은 熱病의 總稱이다. 寒邪로 인한 것은 正病이 되지만, 暑, 濕, 燥, 風이나, 六淫이 서로 섞인 것이나, 때 아닌 戾氣로 인하여 風溫, 濕溫, 溫病, 寒疫 등이 발병한 것은 모두 類傷寒일 따름이다. ……(중략)…… 傷寒의 例와 같이 치료하는 11개의 證, 傷寒과 달리 치료하는 8개의 證, 총 19개의 證이다.”고 하면서 冬溫, 溫病, 寒疫, 熱病, 濕溫, 風溫, 霍亂, 瘧疾, 濕痺, 風濕, 中暈, 傷食, 痰, 脚氣, 內癰, 虛煩, 蓄血, 黃耳傷寒, 赤胸의 총 19가지 病證을 제시하였다⁴⁹⁾.

42) 戈維城. 吳中醫集醫經類·傷寒補天石. 蘇州,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3, 137-141.
43)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傷寒括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02-303.
44) 閔芝慶. 海外回歸中醫善本古籍叢書·傷寒闡要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405-419.

45) 陳堯道. 續修四庫全書985·傷寒辨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655-658.
46) 程國彭. 中華醫書集成·醫學心悟.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29-30.
47) 吳謙等. 御纂醫宗金鑑. 서울, 범인문화사, 2006, 534.
48) 邵成平. 傷寒正醫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2, 19-20.
49) 吳貞. 傷寒指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1-5. “凡感四時六淫之邪, 而病身熱者, 今人悉以傷寒名之. 是傷寒者, 熱病之總名也. 其因於傷者, 自是正病, 若夫因暑因濕, 因燥因風, 因六淫之兼氣, 或非時之戾氣, 發爲風溫, 濕溫, 溫病, 寒疫等證, 皆類傷寒耳. ……(中略)……凡同傷寒之例而治者, 十一證, 不同者八證, 共一十九證”

清代는 明代 類傷寒 學說의 연장선에 있었다. 『傷寒辨證』, 『醫學心悟』, 『傷寒指掌』과 같은 서적에서는 外感病들을 類傷寒에 포함시킴으로써 類傷寒의 종류가 매우 많아졌다. 특히 『傷寒指掌』에서는 治法에 따라 類傷寒을 분류함으로써 外感病과 雜病을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 또한 『醫學心悟』에서는 中寒이라는 새로운 病證이 제시되었으며, 『傷寒指掌』에서는 明代에 출현한 이후 論議가 드물었던 黃耳傷寒, 赤膈傷寒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醫宗金鑑』이나 『傷寒正醫錄』과 같이 外感病을 類傷寒에 포함시키지 않는 醫書들도 여전히 존재했다.

다음으로 이상의 서적들에서 제시된 類傷寒 관련 病證을 비교하였다.

3. 醫書別 類傷寒 내용 비교

醫書別 類傷寒의 출현 빈도를 구하기 앞서, 醫書에 따라 같은 病證에 대해 그 名稱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동일 病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하나의 病證으로 통일하였다. 傷食, 卒食은 '食積'으로, 停痰, 寒痰, 夾痰은 '痰證'으로, 蓄血은 '瘀血'로, 小兒瘡疹은 '痘疹'으로, 傷暑는 '中暈'로, 瘡毒, 螺螄疔, 赤膈傷寒, 流注傷寒, 外癰, 豌豆瘡, 外癰은 모두 '瘡瘍'으로, 射工, 溪毒, 砂證, 痧病은 모두 '水毒'으로 통일하였다.

조사결과 총 20개의 서적에서, 『諸病源候論』에서는 7종, 『千金要方』에서는 3종, 『千金翼方』에서는 4종, 外臺秘要是 3종, 『活人書』는 6종, 『傷寒百證歌』는 4종, 『傷寒補亡論』에서는 23종, 『仁齋傷寒類書』는 4종, 『傷寒全生集』에서는 5종, 『醫學入門』에서는 11종, 『傷寒準繩』에서는 15종, 『丹臺玉案』에서는 7종, 『傷寒補天石』에서는 10종, 『傷寒括要』는 6종, 『傷寒闡要編』에서는 17종, 『傷寒辨證』에서는 11종, 『醫學心悟』는 18종, 『醫宗金鑑』

에서는 5종, 『傷寒正醫錄』에서는 6종, 『傷寒指掌』에서는 19종의 病證이 제시되었다.

病證은 총 37항목이며, 食積, 虛煩은 각 18회, 脚氣는 17회, 痰飲은 16회, 瘀血은 10회, 瘡瘍, 內癰은 각 8회, 瘧瘧은 7회, 水毒은 6회, 風溫, 風濕, 濕溫, 中暈, 霍亂은 각 5회, 冬溫, 溫病, 熱病, 寒疫 각 4회, 寒濕, 濕痺, 內傷, 大頭瘟, 痘疹은 각 3회, 黃耳傷寒, 溫疫, 瘴氣, 狐惑, 變蒸, 飲酒은 각 2회, 破傷風, 勞發, 中寒, 溫毒, 霧, 溫瘧, 瘧疾, 蚩蟬瘧은 각 1회 출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상과 같이 분석한 결과, 食積, 虛煩, 脚氣, 痰飲, 瘀血, 瘡瘍, 內癰 등과 같이 外感病이 아닌 雜病들이 類傷寒으로 많이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雜病만을 類傷寒으로 분류한 朱肱의 醫論이 많은 醫家들에 의해 계승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明代의 이후에는 각 醫書에서 제시하는 類傷寒의 종류수가 많은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傷寒全生集』, 『丹臺玉案』, 『傷寒補天石』, 『傷寒括要』, 『醫宗金鑑』, 『傷寒正醫錄』과 같은 醫書에는 그 종류가 5~7가지를 넘지 않지만, 『傷寒準繩』, 『傷寒闡要編』, 『傷寒辨證』, 『醫學心悟』, 『傷寒指掌』과 같은 醫書에서는 그 종류가 최소 15가지를 넘고 있다. 이러한 큰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은 外感病의 포함여부에 달려있다. 外感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그 종류수가 적지만, 外感病이 포함되는 경우는 그 종류수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醫家에 따라 傷寒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傷寒을 廣義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醫家들은 外感病을 傷寒에 포함시켜 논의하기 때문에 外感病을 類傷寒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傷寒을 狹義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醫家들은 外感病을 傷寒에 포함시키

지 않고 類傷寒에 포함시켜 논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明代末期 이전에는 外感病이 類傷寒에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明代末期 이후에는 外感病이 類傷寒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明代末期 이후에 外感病을 중시했던 시대 영향으로 사료된다.

IV. 고찰

類傷寒과 傷寒의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類傷寒의 종류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外感病과 雜病을 모두 類傷寒에 포함시킨 『醫學心悟』와 雜病만을 類傷寒에 포함시킨 『傷寒心法要訣』의 내용을 동시에 인용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⁵⁰⁾. 하지만 이상과 같이 歷代 醫書別 類傷寒의 경향을 연구한 결과, 外感病이 類傷寒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관점의 차이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傷寒을 廣義로 볼 것인지 狹義로 볼 것인지에 따른 관점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明代末期 이후 外感病이 대두되면서 外感病이 자연스럽게 類傷寒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며, 현대에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外感病과 雜病을 모두 類傷寒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대부분의 한의학사전들이 따르고 있는 『中國醫學大辭典』에서는 外感病과 雜病을 모두 類傷寒에 포함시키고 있지만⁵¹⁾, 歷代 醫書에서 제시된 다양한 類傷寒 病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임상에서는 傷寒이 아니면서, 惡寒과 發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類傷寒의 종류를 넓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歷代 醫書에서 조사된 類傷寒 病證을 통합하여, 類傷寒의 종류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의학사전류에서 밝히고 있는 類傷寒의 종류는 食積, 虛煩, 脚氣, 痰飲, 瘀血, 瘡瘍, 內癰, 瘰癧, 水毒, 風溫, 風濕, 濕溫, 中噎, 霍亂, 冬溫, 溫病, 熱病, 寒疫, 寒濕, 濕痺, 內傷, 大頭瘟, 痘疹, 黃耳傷寒, 溫疫, 瘴氣, 狐惑, 變蒸, 飲酒, 破傷風, 勞發, 中寒, 溫毒, 霧, 溫瘧, 瘧疾, 蚘蟯瘵의 총 37種으로 확대 수정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20종의 書籍에서 類傷寒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類傷寒은 隋·唐代 醫書에서는 ‘似傷寒’, ‘傷寒相似’라 하였고, 宋代에 朱肱의 『活人書』에서 최초로 ‘類傷寒’이라는 말이 등장하였으며, 楊士瀛의 『仁齋傷寒類書』에서 최초로 ‘類傷寒’이 篇名으로 표방되었으며, 이후 明·清代에는 ‘類傷寒’이란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隋·唐代에는 類傷寒과 관련된 일정한 學說이 없고 病證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이후 類傷寒 學說이 형성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3. 宋代 朱肱은 類傷寒에 관한 독립된 編을 구성하고, 정의 및 구체적 病證을 언급하였는데, 그가 類傷寒을 제시한 목적은 雜病과 傷寒을 감별하는데 있었으며, 이는 이후 類傷寒 研究의 礎石이 되었다. 郭雍은 朱肱이 제시한 類傷寒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였으며, 失傳되었던 여러 類傷寒 관련 病證들을 보충하였다.

5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7.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576.

51) 謝觀. 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001, 1440.

4. 明代에는 宋代에 확립된 類傷寒의 바탕 위에 瘀血, 內癰, 內傷, 勞發, 黃耳傷寒, 破傷風과 같은 새로운 病證들이 추가됨으로써, 類傷寒의 理論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시기였다. 明代末期의 王肯堂은 雜病뿐만이 아니라 外感病도 類傷寒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5. 清代에는 外感病을 類傷寒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높아져 類傷寒의 종류가 많아졌다. 특히 『傷寒指掌』에서는 治法에 따라 類傷寒을 外感病 부류와 雜病 부류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中寒과 같은 새로운 病證이 출현하기도 하고 여러 주장과 설명이 있었지만, 대체로 明代 類傷寒 學說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6. 宋代 이후 類傷寒은 일반적으로 雜病 가운데 傷寒과 유사한 질환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明代末期 이후에는 外感病을 傷寒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醫家들에 의해, 外感病이 類傷寒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醫書에 따라 類傷寒의 種類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傷寒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7. 현재 한의학사전류에서 밝히고 있는 類傷寒의 種類는 食積, 虛煩, 脚氣, 痰飲, 瘀血, 瘡瘍, 內癰, 瘰癧, 水毒, 風溫, 風濕, 濕溫, 中暈, 霍亂, 冬溫, 溫病, 熱病, 寒疫, 寒濕, 濕痺, 內傷, 大頭瘟, 痘疹, 黃耳傷寒, 溫疫, 瘴氣, 狐惑, 變蒸, 飲酒, 破傷風, 勞發, 中寒, 溫毒, 霧, 溫瘧, 瘧疾, 蚘蟯瘦의 총 37種으로 확대 수정할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7.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576.
2. 謝觀. 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001: 1440.
3. 김봉현. 傷寒全生集·傷寒總難提綱 등에 대한 研究. 나주, 동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4. 嚴世芸. 國譯中醫學術史. 고양시, 대성의학사, 2011: 318-324, 397-420, 636-641, 779-782.
5. 김정철. 李常和의 『辨證方藥正傳』에 對한 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6. 巢元方 等.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80, 357, 634, 635, 722, 753, 939, 1248.
7. 孫思邈. 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87, 208, 540.
8. 孫思邈.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27-129.
9.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58, 493, 857.
10.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174, 177, 517.
11.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學苑出版社, 2009: 111, 191.
12.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4-15, 76.
13. 郭雍. 傷寒補亡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64-295, 296-302.
14. 楊士瀛. 楊士瀛醫學全書·仁齋傷寒類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462-463.
15. 陶節庵. 傷寒全生集. 鄭州, 中原農民出版社, 2012: 234-242.
16.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7: 1128-1136, 1830.

17.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傷寒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69-770.
18. 閔芝慶. 海外回歸中醫善本古籍叢書·傷寒闡要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405-419.
19.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傷寒括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02-303.
20. 陳堯道. 續修四庫全書985·傷寒辨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655-658.
21. 程國彭. 中華醫書集成·醫學心悟.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29-30.
22. 吳謙 等. 御纂醫宗金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6: 534.
23. 吳貞. 傷寒指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1-5.
24. 孫文胤. 丹臺玉案.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2: 54-60.
25. 戈維城. 吳中醫集醫經類·傷寒補天石. 蘇州,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3: 137-141.
26. 邵成平. 傷寒正醫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2: 19-20.
27. 한의학용어제정위원회. 표준한의학용어집. 서울, 함춘한학, 2006: 286.